

장애 아이 둔 가족의 두 모습... 부모의 선택이 가른 희망과 절망 사이

안타까운 가족애

발달장애 아들 키우다 끝내...

“너무 힘들고 치료 막막” 유서 남기고 광주서 일가족 3명 자살

발달장애 아들을 돌보며 힘들어하던 30대 부부가 아들과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장애를 둔 부모의 고통을 더 이상 개인의 불행으로만 여기지 않도록 고민해야 할 시기가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다.

13일 오전 10시10분께 광주시 북구 모 아파트에 사는 K(36)씨·J(여·34)·아들(5) 등 일가족 3명이 자신의 집 안방에서 숨겨 있는 것을 J씨 여동생이 발견, 경찰에 신고했다.

J씨는 경찰에서 “언니가 며칠 전 아이 때문에 힘들다는 얘기를 한 적이 있다. 이날 전화통화가 되지 않아 가봤더니, 숨져 있었다”고 진술했다.

안방엔 높이 70~80cm의 화덕에 연탄 3장이 타고 있었고 K씨 일가족은 나란히 누워 있는 상태였다. 외상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 방 바닥엔 A4용지 4장 분량의 유서가 발견됐다.

K씨 부부가 숨지자 직전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유서에는 ‘아이 치료를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치료 안 될 것이라는 말을

듣고 너무 힘들었다. 치료에 진척이 없으니, 너무 힘들다. 앞으로 치료도 막막하다. 큰 곳(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싶는데, 지역엔 이런 시설(발달장애를 전문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이 없다’는 내용이 적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K씨 부부가 발달 장애를 가진 아이를 돌보는 데 힘들어하다 이 같은 선택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K씨 부부 아들은 3일 전 광주 모 병원에서 발달장애 진단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아들은 직장 생활을 하는 K씨를 대신해 J씨가 돌보면서 힘들어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자주 울고 과성을 지르며 물건을 집어던지는 등 낯선 행동을 하는 다섯 살 난 아이와의 힘든 ‘투쟁’에 버거워했다는 것이다. 유서에는 잘못된 것을 자기 탓이라며 괴로워하는 부모로서의 죄책감도 엿보였다.

K씨 부부는 유서에 ‘우리만 죽으면 아이가 너무 불쌍하다. 함께 가겠다. 우리 세 식구는 아름다운

곳으로 여행을 떠난다. 방안에 가족 사진이 있으니, 영정사진으로 써달라. 미안하다”는 내용이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호전될 뿐 완치가 되지 않는다는 것과 발달 장애아를 위한 맞춤형 전문 시설이 없는 점도 K씨 부부를 힘들게 한 것으로 경찰은 파악했다.

장애인단체 관계자는 “발달 장애인 자녀를 둔 부모의 소원은 아이가 자신보다 하루 먼저 눈을 감는 것”이라며 “국내에는 전문 시설이 없어 아이 키우기 힘들어 이 믿을 가는 부모들도 적지 않다”고 말했다.

장애인단체 관계자들은 조금 해하지 말고, 의료진 및 같은 고민을 안고 살아가는 비슷한 가족들을 찾아 함께 고민하면서 장기적인 계획을 세웠으면 하는 안타까움을 표시했다.

광주장애인부모연대 관계자는 “발달장애 진단을 받으려면 최소 6개월 이상 걸린다. 담당 의사의 지속적인 진찰과 지능검사를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1급~3급까지 있다. 3급이면 지능이



13일 광주시 북구 모 아파트에서 일가족 3명이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시신을 수습하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50~70정도 되는데, 누군가 보조 가족의 고통을 아무도 모른다”고 말했다. /이종형기자 golee@kwangju.co.kr

‘가장(假裝) 범죄’ 척결 특명

‘바지 사장’ 내세운 불·탈법 음주사고 운전자 바꿔치기 원산지 허위 둔갑 업자 등 광주지검, 집중 단속 나서

‘바지 사장’을 내세워 불·탈법 행위를 서슴지 않는 유혹·대부업체, 인명 피해를 낸 뒤 ‘대포’ 피해로 축소하는 운전자들.

범죄의 단골 소품(小品)으로 전락한 ‘대포차’, ‘대포폰’, ‘대포통장’ 등 ‘대포’ 물건, 원산지를 허위로 둔갑시키는 먹거리 판매업자 등...

검찰이 진실을 은폐한 채 ‘합법’으로 포장해 이뤄지고 있는 다양한 유형의 ‘가장(假裝)범죄’ 척결을 위한 수사에 나서기로 했다.

광주지검은 13일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한 가장 범죄 척결대상을 선정, 집중적으로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이 꼽은 5가지 유형은 ▲속칭 ‘총대 사범’이라 불리는 ‘진범’ 가장 범죄 ▲은폐·지속형 가장 범죄 ▲범죄 필수품이 된 ‘대포’ 물건 범죄 ▲원산지 둔갑 행위 및 자격증 대여 등

명성·신뢰 가장 범죄 ▲보조금·보험금을 노린 가장 범죄 등이다.

우선, ‘총대 사범’의 경우 음주·무면허 운전술 숨기려고 운전자를 바꿔치기하거나, ‘바지사장’을 내세워 매매업소·무허가 유혹주점·사행성 게임장·불법 대부업을 운영하는 행위가 해당한다. 은폐·지속형 가장 범죄에는 단란주점으로 허가를 낸 뒤 유혹주점 영업을 하는가 하면, 인명 피해 교통사고를 낸 뒤 대포 피해 사고로 축소하는 경우 등이 속한다.

각종 범죄나 도주의 수단으로 이용되는 등 피해가 날로 심해지고 있는 ‘대포’ 물건들, 원산지 둔갑을 비롯해, 농·수산물 원산지 허위 표시나 보조금·보험금 편취 행위, 건축사·기술사·사무장 병행 등 자격 대여 행위 등도 검찰의 집중 단속 대상에 포함됐다. 검찰은 부장검사를 팀장으로 전담 분야별로 6개 팀을 꾸려 유관 기관과 연계, 연중 단속한다는 방침이다.

이두식 광주지검 차장검사는 “불법이 있는 곳에 책임이 있다”는 원칙을 확고히 할 수 있도록 집중 단속 활동을 벌여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지윤기자 dok2000@kwangju.co.kr

900억 횡령 이홍하씨 구속집행정지 신청

교수협 등 “엄정 처벌해야”

이홍하(75) 서남대 설립자가 법원에 구속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이씨 변호인은 13일 오후 광주고법 형사 1부(서경환 부장판사) 심리 로 열린 공판에서 “(이씨가)고령인 데다 병원 진료가 필요한 상황이지만 교도소 의료시설이 열악하다”며 구속집행정지를 요청했다.

이씨 측은 지난달 7일 재판부에 구속집행정지 신청서를 제출했으며 검찰은 3일 뒤 반대하는 의견서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건강 상태 등을 검토해 받아들일지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이씨는 예초 1000억원대 횡령 혐의로 구속기소됐지만 지난해 2월 7일 광주지법 순천지원 1심 과정에서

보석으로 풀려나 논란을 낳았다.

검찰이 이례적으로 보석 허가 결정에 항고하고 광주고법과 대법원이 구속 필요성을 인정하면서 이씨는 63일 만에 다시 구속된 바 있다.

한편 서남대 교수협의회, 광양보건대 정서화추진 교수협의회, 신영대 비상대책위는 이날 광주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광주고법은 신속하고 엄정하게 이씨를 처벌해 해당 대학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해당 대학 교수와 학생 150여명은 전북 남원 서남대에서 모여 광주로 출발, 기자회견을 하고 이씨에 대한 공판을 참관했다.

이씨는 교비 등 900여억원을 횡령한 사실이 인정돼 지난해 6월 징역 9년을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다. /김지윤기자 dok2000@kwangju.co.kr

꽃꽃한 가족애

지체장애 아들 위해서라면...

순찰차 타고 싶다는 소원 들어주려 광주 등 전국 돌며 탑승 체험

“아들아, 이제 소원을 풀었으니, 엄마 소원도 들어줘야지...”

지난 7일 오후 6시 광주시 남구 남부경찰서 주월파출소 앞. 빨간색 접퍼에 모자를 쓴 이모(16)군은 주월파출소 직원들의 몸동작과 경광등·수갑 등 경찰 장비 하나하나를 관심 있게 지켜봤다. 경찰관이 순찰차를 주차한 뒤 파출소 안으로 들어오자, 이군은 “우와~순찰차다”라며 환한 표정을 지으며 주차장으로 향했다. 안씨는 경찰관의 도움을 받아 아들과 함께 순찰차에 올라탔다.

항상 시무룩하게 보이던 아들 얼굴이 밝아지는 것을 살피던 이군 어머니 안모(44)씨의 얼굴에도 옅은 미소가 번졌다.

이날 순찰차 체험은 순찰차를 타고 싶어서라는 아들의 소원을 들어주기 위해 안씨가 마련한 ‘선물’이다. 안씨는 전국을 돌며 경찰서·파출소·지구대를 찾아 돌아다니고 있다.

안씨 아들은 정신지체 2급 장애를 앓고 있다. 일반인과 다소 다른 아들을 돌보느라 마음 고생도 심했다. 하지만 아들이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옆에서 지켜봐 주고 도와주는 게 부모 아니냐며 웃었다.

경기도 군포시 D중학교 특수반에 다니며 순찰차를 타던 더없이 기뻐하는 안씨 아들의 꿈은 경찰관.

안씨는 아들의 소원을 들어주

기 위해 전국을 돌며 순찰차를 태워주겠다고 여행 계획을 세웠다. 이미 부산·대전에서 순찰차 체험을 한 뒤 광주로 왔다.

안씨는 광주 주월파출소에 전화를 걸었고 순찰차 체험을 요청했다.

“지금 대전에서 광주로 내려가는 길인데요. 혹시 우리 아들이 순찰차를 함께 타면서 직업 체험을 할 수 있을까요?”

주월파출소 측은 이군이 경찰을 너무 좋아하고 전국에 있는 112 순찰차를 타는 것이 소원이라 그곳에 가면 체험하게 해줄 수 있냐는 안씨 요청을 흔쾌히 들어줬다. 주월파출소 직원들은 “먼 곳에서 찾아온 ‘어린 손님’을 그냥 보



순찰차 탑승을 끝낸 뒤 이모(16·사진 왼쪽)군이 주월파출소 나승호 경위와 함께 기념사진을 찍었다. <광주남부경찰서 제공>

낼 수 없었다”고 했다.

나승호 경위와 흥기찬 경위는 안씨와 아들 이군을 순찰차에 태우고 한 시간 가까이 주월동 일대 무등 시장과 원광대 한방병원 등 관광 구역을 꼼꼼히 알려주며 ‘순찰’ 임무도 졌다.

나 경위는 “경찰관에 대해 이

것 저것 질문하는 이군에게 업무를 설명해주고, 광주의 곳곳을 보여주게 돼 뿌듯했다”며 “정신지체 2급 장애를 앓고 있는 아들의 소원을 들어주기 위해 전국을 돌며 순찰차를 태워주는 모정에 고개가 숙여졌다”고 말했다. /박정렬기자 halo@kwangju.co.kr

막가는 남고생... 동갑내기 여고생 성폭행하고 협박까지



○...동갑내기 여고생을 성폭행한 것조차 모자라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 것에 협박까지 한 남고생이 철창행.

○-13일 광주광산경찰에 따르면 A(15·광주 동고교 1년)군은 지난해 11월 20일 광주시 광산구 모 아파트 옥상

에서 페이스북을 통해 알게 된 B(여·15)양을 불러내 성폭행하는 등 4일간 네 차례에 걸쳐 성폭행했다는 것.

○-A군은 성폭행당한 B양이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데 앙심을 품고 ‘주변인들에게 성폭행 사실을 알려겠다’고 협박까지 했다는 게 경찰의 설명. /박정렬기자 halo@kwangju.co.kr

Advertisement for '利川徐氏 尙書公 大同譜 編纂' (Leecheon Seon's Family Genealogy). It features a large '公告' (Notice) and mentions the 42nd anniversary of the publication of '壬子譜 (1972년 발간) 이후 42년 만에 대동보를 편찬 합니다'.

Advertisement for '단비플라워' (Danbi Flowers). It promotes '365일 연중무휴 가격변동 없음!' (365 days, no price changes) and lists services like '죽화화환3단' and '근조화환3단'.

Advertisement for '소리큐' (SoriQ) voice recorder. It features a testimonial from a man and lists product models: 'S20, S22, ST33'. It also includes a map showing the location of the store in Nam-gu, Gwangju.